

자연이 만들어 준  
한국인의 본향

# 고창소식

2017. 09. 제426호





## 함께 활짝 웃는 고창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이면 성실한 땀을 흘린 농부가  
가을이면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얻듯,  
고창군은 군민 모두가 화합·협력하며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공정의 땀을 흘려 소중한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관용과 배려, 섬김과 나눔의 가치를 지키는  
더불어 행복한 지역 공동체,  
고창군이 만듭니다.







자연이 만들어 준  
한국인의 본향

**고창소식**  
2017. 09. 제426호

## CONTENTS

- 02 Photo Essay 함께 활짝 웃는 고창
- 04 군정 특집 박우정 군수인터뷰
- 10 군정 특집 공모사업 및 수상현황
- 12 의회소식 의회 운영 소식
- 15 SNS채널 소개
- 16 고창의 보물 국가지질공원
- 18 여기, 이곳 책마을해리
- 20 주목받는 기업 고창 웰파크시티
- 22 정겨운 우리고장 심드림/지역숙박/캠핑
- 26 농업이 희망이다 베리팜
- 28 고창, 고창사람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
- 30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우리 다둥이/귀촌/다문화 가정
- 34 기관 소개 고창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 36 군정 종합 뉴스
- 38 여기 어때!? 블로그기자단
- 39 행정정보 내고장 고창 사랑카드/우체국쇼핑
- 40 행정광고 고창모양성제

군정소식지(재외군민 무료 우편 발송)를 보내드립니다.

주소 (우 56428)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전화 063-560-2327 팩스 063-560-2339 홈페이지 <http://www.gochang.go.kr>

발행처 고창군청 자치행정과 발행인 고창군수

발행일 2017. 9

디자인 솔그래픽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에 의한 3/4분기 1종 1회 홍보물입니다.





## 함께 나누고, 행복을 더하는 살맛나는 고창군 따뜻한 내일이 기대되는 행복도시



군민이 가장 행복한 아름답고 청정한 자연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매진해 온 민선 6기 고창군정이 하나 둘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단순한 양적 성장만이 아닌 모든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으며 지역에 꼭 필요한 질적 성장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고창군. 자연이 준 복 받은 고창, 민선 6기 고창군정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들어본다.

**Q.** 쉼 없이 달려와 어느덧 4년차를 지나고 있습니다. 일하는 군수, 소통하는 군수로 회자되고 있는데 소감 한 말씀해주세요.

**A.** 군민과 화합·협력하며 큰 갈등이나 반목 없이 평화롭게 군정이 추진되었고 무엇보다 한 지역에 편향되지 않고 읍면별 고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애썼습니다. 다행히 많은 군민들이 이러한 방향성에 공감하고 협조해 주셨으며 군민과의 소통에 집중하면서 군정을 이끌었습니다. 군민들은 생활환경이 나아지고, 안심하고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군정을 위해 재난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지낼 수 있고, 군민들이 오랫동안 원해왔던 숙원사업 해소에 힘썼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수없이 오가며 현재 2018년 국가예산에 1268억원이 반





영되는 매우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2014년 당시 고창군이 확보한 2015년 국가예산은 477억원 이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동안 무려 790여억원이 늘어난 국가예산을 확보하면서 대내외적으로 고창군 경쟁력을 인정받았고 이와 함께 군 예산은 2014년 당시 4087억원이었는데 올해 2회 추경까지하면 5581억원으로, 고창군 살림규모는 매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고창군은 계속해서 군민과 함께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본향을 이뤄갈 것입니다.

**Q.** 쾌적하고 안전한 고창군을 만들겠다고 많이 강조를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A.** 군민들의 생활터전이 쾌적하면서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재난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은 취임하기 전부터 군민들과 한 약속이고, 이 부분만큼은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고창읍 중앙로 일대의 전선을 지중화하고 군청 앞 오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도시 경관이 훨씬 쾌적해졌을 뿐만 아니라 주요 도로 확·포장 등 생활편익을 도모하는 도시가로망 구축에도 힘써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들이 오랜 시간 고통 받고 불안한 채로 인내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수(공음), 건동(공음), 금평(해리)지역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재해위험저수지(6개)정비사업에 국비 포함 409억여원이 투입되어 재난으로부터 걱정 없는 지역이 될 수 있게 사업이 추진 중이며, 구암상습 침수지역, 고창읍 교촌과 고창읍성 주변 급경사지, 성내 속골, 흥덕 복룡, 무장 정거 소하천 정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말 오랫동안 노력했던 고창천의 침수를 예방하는 ‘고창지구 도시침수예방’(총 사업비 618억)과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총 사업비 458억)도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영되면서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모두 완료되면 주민들이 적어도 매년 비만 오면 집이나 논과 밭이 침수되지 않을지 불안해 할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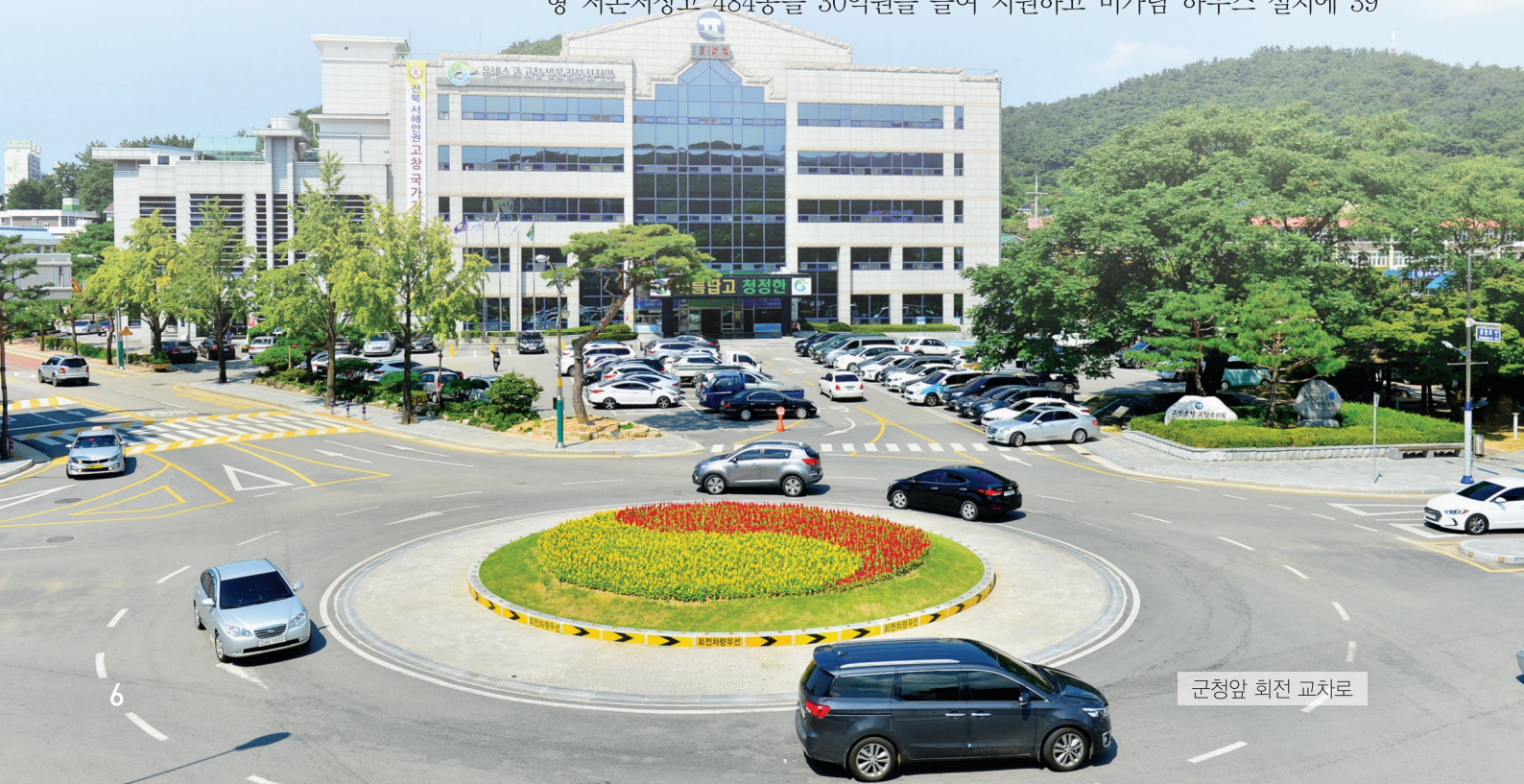


**Q.** 생물권보전지역 고창, 자연생태환경의 보전도 중요하지만 지역발전에 대한 고민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해 나가고 있을까요?

**A.**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례입니다. 여기에 세계유산 고창고인돌 유적, 운곡람사르습지에 최근 국가지질공원 인증까지 자연생태환경의 뛰어난 가치를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창군은 친환경·친자연 정책을 펼치면서 이를 관광자원화해 향토음식과 지역 농산물 판매, 농어업체험사업을 하면서 주민소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운곡습지 개선지역 복원사업에 40억원을 들여 습지체험장, 탐방로, 생태숲길과 전망대 조성을 완료했고, 35억원을 투입해 친환경 숙박시설인 에코촌 조성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58억원이 들어간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도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어 이와 관련한 보전, 발전, 지원 기능을 더욱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심원면 고전리 일원에 70억원을 들여 갯벌 생태계복원사업과 226억원을 투입해 선운천과 외정천에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추진하면서 건강한 자연생태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Q.** 군민 대다수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나요?

**A.** 탄탄한 농축수산업 소득기반조성과 6차 산업을 육성하며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해리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신축하고 축산경쟁력 강화에 79억원을 지원해 경쟁력을 높였고 특히 농산물 중소형 저온저장고 484동을 30억원을 들여 지원하고 비가림 하우스 설치에 39



군청앞 회전 교차로





01 제6회 대한민국 성공대상 시상식  
이낙연 국무총리와 기념촬영  
02 한국의 영향력있는 CEO 대상

억원, 프리미엄 베리굿 소스 육성사업과 복분자 푸드 테라피 지원사업도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부안면 용산리 복분자클러스터 단지 일원에는 복분자 6차 산업화 지구가 30억원을 들여 설계 중이며 심원면 두어리 일원에는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지요. 특히 올해 축제 기간 동안에만 50만여명이 찾아 온 ‘고창청보리밭축제’와 ‘풍천장어와 함께하는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 ‘고창갯벌축제’, ‘해풍 고추축제’ 등 고창에는 명품 농특산물을 축제와 함께 즐기고 농어민들은 이를 판매하면서 소득을 얻을 수도 있고 또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선정된 ‘고창모양성제’는 고창이 가진 문화·역사자원을 완성도 높은 축제로 운영하면서 군민 화합의 장이자 역사문화체험, 농특산물을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어 지역을 알리는 데 특정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복지사각지대 없는 고창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 정책은 잘 추진되고 있나요?

**A.** 고창군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고 소외되는 군민이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임신과 출산, 보육과 교육을 비롯해 어르신과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소득계층의 생계·교육·장제·생활안전자금과 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기회를 늘려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복지관도 새롭게 지어서 체계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재활치료, 교육 등을 받게 됐습니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과 아동복지지원을 비롯해 전국에서 군 단위로는





최초로 건립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큰 호응 속에 운영되고 있으며 출산장려금을 첫째 100만원부터 다섯째 아이 1000만원까지 지원범위를 폭넓게 확대하고 분만산부인과를 개설해 보다 안심하고 출산과 양육을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지요. 이밖에도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개·보수와 기능보강, 기초연금, 노인돌봄서비스를 비롯해 무료예방접종 확대와 경로당 무료 순회진료 등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행복한 복지지원이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 속에 계속해서 결혼과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조성과 든든한 노후를 보장해 나갈 것입니다.

**Q.**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A.** 현장에 나가 눈으로 군민들의 삶을 보았고, 귀를 열고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진심을 다해, 고창군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아름답고 청정한 고창군, 누가 찾아와도 정감 있고 오래 머물고 싶은 고창군으로 완성시켜갈 계획이고요. 가장 중점적으로 고창군에 찾아오기 쉽도록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에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편하고 쉽게 찾아올 수 있어야 고창군이 가진 여러 자산과 매력을 보고 느낄 것이고, 이러한 발길이 귀농귀촌 등 정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먼저 국도 77호선,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에서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로 이어지는 부창대교 조기건설을 위해 필요한 7870여억원을 전북도와 정치권 등의 공조를 이끌어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이와 함께 백양IC부터 고창석정온천까지 이어지는 국지도 15호선의 조기착공과 장성 북일면에서 고창석정온천까지 이어지는 국지도 49호선의 조기 완공, 흥덕면에서 부안군까지 이어지는 국도 23호선 건설과 고창에서 내장IC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계획대로 교통망이 조성될 때 장성, 광주, 전남을 비롯해 충청,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고창군에 찾아오는 길이 수월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창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 고창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2019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동림철새도래지, 운곡습지, 선운산도립공원 등 고창의 내륙자원과 고창갯벌 랍사르습지, 동호·구시포해수욕장 등 해안자원, 고창읍성과 무장읍성, 고인돌유적, 문수산과 풍물소리 테마파크 등 문화자원들을 하나로 연계·결합시켜 생태관광벨트화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고창군은 전통과 문화, 역사 등 관광에 접목할 자원이 무수히 많고 흩어져 있는 이 자원들을 모아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함께 주민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오직 고창군과 군민만 바라보며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들이 알차게 영글어갈 수 있도록 힘차게 달려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 군민의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고창군정

(단위 : 백만원)

### 공모사업 추진현황

기간 : 2016년~  
2017년 상반기  
합계 : 441억 6900만원

연번	공모기관	사업명	총사업비	비고
1	전라북도	쌀경쟁력제고사업(도중점사업)	380	
2	환경부	자연마당조성사업	5,500	
3	지역발전위원회	새뜰마을사업	2,500	
4	문화체육관광부	생태녹색관광자원화사업	100	
5	문화체육관광부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324	
6	문화체육관광부	야영장안전시설 및 활성화프로그램 공모사업	40	
7	문화체육관광부	전통한옥체험프로그램 지원사업	30	
8	문화체육관광부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국립단체 우수공연	60	
9	문화체육관광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운영사업	30	
10	문화체육관광부	문예회관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13	
11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464	
12	해양수산부	어촌체험마을역량강화사업(장호마을)	20	
13	해양수산부	어촌특화역량강화사업(하전마을)	25	
14	중소기업청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480	
15	문화체육관광부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민간단체 우수공연	123	
16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20	
17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15	
18	문화체육관광부	열린관광지공모사업	400	
19	농림축산식품부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20	
20	해양수산부	어촌6차 산업화 시범사업(두어마을)	1,650	
21	농림축산식품부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조성사업	464	
22	전라북도	희망마을만들기사업(신림면 반룡마을)	110	
23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박물관 「1관 1단」 사업	25	
24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대산농어민체육센터)	730	
25	전북농업기술원	2016년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 육성사업	110	
26	행정자치부	2016년 마을공방사업	200	
27	농림축산식품부	6차산업화지구 조성사업	3,000	
28	전라북도	2017년 쌀 경쟁력 제고 도 중점사업	550	
29	전라북도	2016년도 발식량작물 가공산업 육성사업	95	
30	농림축산식품부	원예농산물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660	
31	지역발전위원회	창조지역사업	1,200	
32	농림축산식품부	상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6,000	
33	농림축산식품부	주진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500	
34	농림축산식품부	연동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500	
35	중소기업청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	1800	
36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11	
37	전라북도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20	
38	전라북도	주거취약지 생활환경개선사업	300	
39	농림축산식품부	2017년 농식품기업 맞춤형지원사업	254	
40	농림축산식품부	2017년 소규모 6차산업화사업	100	
41	농림축산식품부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채취단지 조성사업	160	
42	전라북도	2017년 생생마을만들기 사업	75	
43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중심지 활성화 (아산·공음)	11,795	
44	농림축산식품부	창조적마을만들기(성송·신림)	1,000	
45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216	
46	산림청	산림작물생산단지	500	
47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500	





2017년

## 수상현황

연번	시상명	시상부문	주최/주관	일자	비고
1	2017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대상	가치경영 부문	주최 : TV조선 후원 : 조선일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1/25	
2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귀농귀촌 부문	주최 : 조선비즈 후원 : 조선일보, TV조선,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3/31	5년 연속 대상
3	2017 국가브랜드 대상	고창 황토배기 수박 고창북분자선연	주최 : 중앙일보 후원 :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4/6	황토배기 수박 8년 연속 북분자선연 7년 연속
4	2017 코리아 탑브랜드 대상	특산품 브랜드 부문	주최 : (사)한국언론인협회, 서비스마케팅학회	4/12	4년 연속
5	2017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복분자 부문: 고창 복분자 선연 멜론부문: 고창황토배기멜론	주최 : 동아닷컴, 한경닷컴, MBC (공동주최) 후원 :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동아일보, 한국경제신문	4/18	복분자 선연 7년 연속 대상 황토배기 멜론 첫 수상
6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착한브랜드 대상	도시브랜드경영 부문	주최 : 동아일보 후원 :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5/24	한국인의 본향 고창 브랜드 가치 공로
7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기초자치단체장	주최 : 유권자시민행동, 지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6/19	
8	2017 소비자가 선택한 품질만족 대상	지역농 · 특산물	주최 : 조선일보, (주)디지털조선일보 후원 :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7/3	고창황토멜론
9	2017 대한민국 명가명품 대상	지역특산품	주최 : 한국소비자협회, 컨슈머포스트 주관 : 대한민국국회정부위원회	7/11	복분자 '선연'
10	2017 대한민국 경영대상	친환경공공 부문	주최 : 동아일보 후원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7/20	3년 연속 수상
11	대한민국 신뢰받는 공공혁신 대상	브랜드경영대상	주관 : 중앙일보, 포브스코리아	7/25	2년 연속
12	2017 한국을 빛낸 대한민국 총효대상	지역행정혁신부문대상	주최 : 대한민국 총효대상 조직위원회 주관 :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 언론인연합회, 국민행복시대	8/24	
13	2017 대한민국 탑 리더스 대상	혁신행정 자치단체	주관 : 대한뉴스신문(주), 코리아뉴스, 시사매거진2580	9/13	



2016년

연번	시상명	시상부문	주최/주관	일자	비고
1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귀농귀촌도시부문 대상	주최 : 조선비즈 후원 : 조선일보, TV조선,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3/9	4년 연속
2	한국 시니어산업 대상	귀농귀촌도시부문 초대 대상	주최 : 동아일보 후원 :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3/23	
3	국가브랜드대상	고창황토배기수박, 복분자 선연 : 농식품브랜드 부문 대상	주최 : 국가브랜드대상 선정위원회 후원 :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4/4	수박 7년 연속 복분자 6년 연속
4	코리아탑브랜드대상	복분자 선연 특산품브랜드 부문 대상	주최 : 서비스마케팅학회, (사)한국언론인협회 주관 : 한국지속경영평가원	4/12	3년 연속
5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황토배기 수박, 복분자 선연 : 브랜드 대상	주관 : 대한민국대표브랜드 대상선정위원회 후원 :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일보, 한국경제신문사	4/28	수박 10년 연속 복분자 8년 연속
6	2016 대한민국 경영대상	친환경경영 공공부문	주최 : 동아일보 후원 :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6/28	2년 연속
7	2016 한국의 미래를 빛낼 CEO 대상	친환경 공공부문	주최 : 월간조선 후원 : 조선일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7/1	
8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 7년 연속 수상		전라북도	7/4	
9	2016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	브랜드경영부문	주최 : 중앙일보, 포브스코리아 후원 :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7/26	첫 시행
10	대한민국 올해의 히트상품 대상	고창멜론	주최/주관 : 디지털 조선일보 후원 : 조선일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9/7	
11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상	지방자치행정공로 부문	주최 : (주)21세기뉴스, 민주신문 후원 : 위성티브이방송, KTN뉴스, 미주한국TV방송, 대한언론인연맹, 한국주간사진기자협회	9/28	
12	책 읽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독서경영 대상	주최 : (사)국민독서문화진흥회	10/11	농업기술센터 수상
13	세계명품 브랜드 대상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주최 : 월간 자랑스러운한국인, (주)뉴미디어코리아 주관 : 세계명품브랜드대상조직위원회	10/24	
14	통계조사업무 유공 포상	농림어업 총조사		11/15	국무총리상(전국군부유일수상)
15	세종대왕 나눔봉사대상		주최 : (사)한국유엔봉사단, (사)한국국제연합봉사단 주관 : 2016대한민국세종대왕나눔봉사대상대회조직위원회	11/9	
16	고창복분자 선연 대한민국 명가명품 대상	대상	주최 : 명가명품대상위원회, 컨슈머포스트 주관 : 명가명품연구소	11/28	3년 연속 수상
17	제5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종합대상	종합대상, 지속가능도시대상, 친환경지방자치단체장상	주최 :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11/29	3관왕
18	제6회 대한민국 성공대상	군정정책부문	주최 : (사)국민성공시대 주관 : 대한민국성공대상위원회	12/6	
19	대한민국 CEO리더십 대상	혁신경영부문	주최 : 중앙일보	12/22	





# 군민과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



“ 고창군의회는 군민이 더욱 행복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민의 전당을 만들겠습니다. ”







## 군민과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창군의회 **최인규** 의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재외 군민 여러분!

고창군의회는 군민이 기대하고 희망하는 비전을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군민의 작은 의견에도 귀 기울이며 군민이 활기찬 생활을 영위하고 미래에 대한 밝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7대 후반기 의회에서는 “군민과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라는 의정방향으로 지난 1년동안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항상 군민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있으며 작은 고충까지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면서 삶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생생한 목소리와 다양한 의견을 빠뜨리지 않고 수렴하여 군민과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집행부에 대하여는 모니터링을 통하여 군정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질책보다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군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7대 후반기 고창군의회는 군민이 주인이 되고 군민과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를 구현하고 동료 의원과 함께하는 의정을 펼치고, 군민들에게 사랑받는 진정한 민의의 대표기관이 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언제나 지속적으로 보내주고 계시는 따뜻한 격려와 성원, 그리고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고창군의회가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한 차원 승화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사랑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7대 후반기 고창군의회 의정방침

- 군민이 행복한 섬김의 의정 구현
- 존경과 신뢰로 깨끗한 의회 정립
-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민의 전당

## 2017년도 하반기 회기운영 계획 (9월~12월)



### ▶ 상임·특별위원회 활동 강화

- 상임·특별위원회 활동 강화로 지역현안문제 해결

### ▶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으로 책임행정 구현

### ▶ 제2차 정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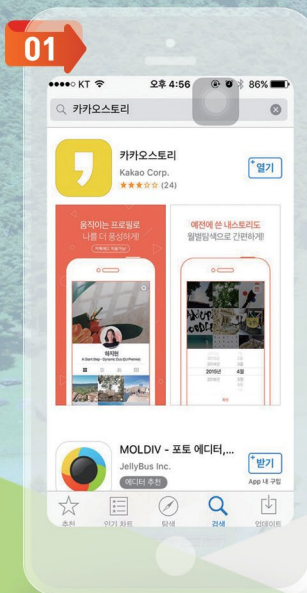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군정질문 및 답변



# 그리운 고향소식 이제 핸드폰으로 편하게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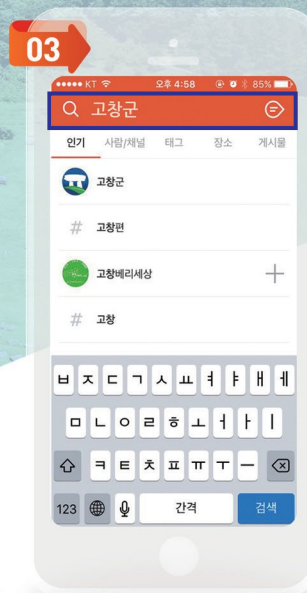
가슴 속 언제나 그리운 내 고향 고창.  
항상 궁금한 고향소식을  
**핸드폰 카카오토리**를 통해서 받아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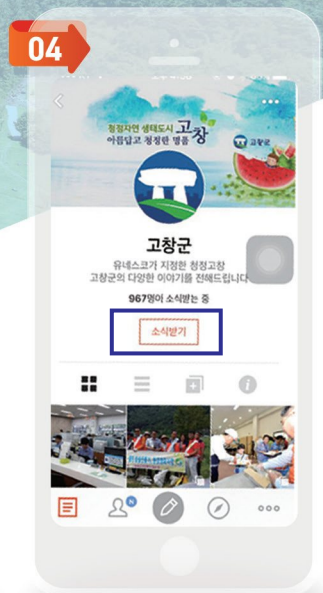
〈카카오토리 실행〉



〈고창군 검색〉





〈고창군 스토리 선택〉



〈고창군 스토리  
채널 소식받기〉

카카오토리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에서도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  <http://www.facebook.com/gochangcounty>
-  <https://twitter.com/topgochang>
-  <http://blog.naver.com/topgochang>



## 고창군! 전북 최초 ‘국가지질공원 인증’ 선운산·고인돌군 등 6개소 생태관광에 새로운 활력

“축복 받은 천혜의 땅 고창”이 최근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으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과 더불어 또 다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 8월 30일 개최된 제17차 지질공원위원회에서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됐다.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 관광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가 인증한 제도로 현재 강원평화지역, 강원고생대, 울릉도·독도, 경북 청송, 부산, 무등산, 제주도, 한탄·임진강 등 8개 국가지질공원이 있다.

고창군은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부안군과 전라북도 주관으로 지질공원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지질공원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지질명소 발굴, 지질공원안내센터, 지질탐방로, 주민 협력체계 구축 등 기반을 마련하고, 지질교육 및 탐방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 왔다.

### ‘지구과학 우수성’ 입증

이번에 인증된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의 면적은 520.3km<sup>2</sup>이며, 지질명소는 고창군에 운곡습지 및 고인돌군, 병바위, 선운산, 소요산, 고창 갯벌, 명사십리 및 구시포 등 6개소와 부안군에 적벽강, 채석강, 솔섬, 모항, 위도, 직소폭포 등 6개소로 총 12개소가 있다.

특히 지난 6월에 진행된 현장실사에서, 람사르고창갯벌센터의 지질교육 프로그램인 ‘갯벌은 살아있다’ 등에서 지역 주민참여 의지 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국가지질공원으로서 운영 여건과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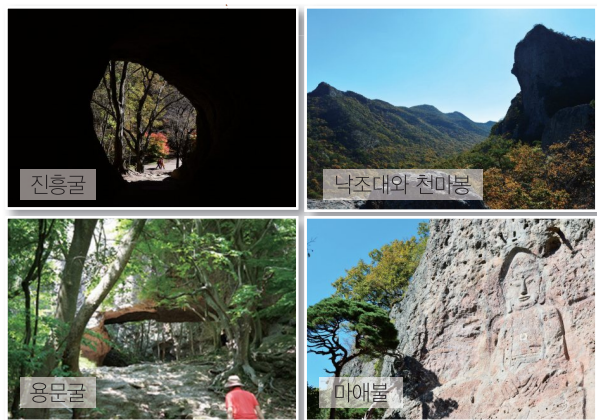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평가받았다는 분석이다. 국가지질공원 인증에 따라 고창군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와 함께 역사 문화적으로는 물론 생태 및 친환경적 가치를 다시 한 번 입증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고창-부안권 지질자원의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제 여행사 상품 중 70%가 유네스코 지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볼 때 베트남 하롱베이(세계유산 지정지역) 경우 1994년 관광객이 23만명에서 2005년 300만명으로 10배 이상 늘었으며 제주도(수월봉) 경우 2010년 인증 후 1만명에서 2014년 20만명 이상으로 20배 이상 관광객이 증가했다.

### 생태관광과 연계한 지질관광 활성화 경제발전 UP

또 국가지질공원의 브랜드인 '지오브랜드 인증'으로 각종 농·특산물 판매 증가는 물론 음식점, 숙박, 축제, 기념품 등 다양한 소득 효과가 기대된다. 고창군은 앞으로 고창의 지질학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질공원해설사 양성, 지질명소 추가발굴, 지질공원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주민교육 및 홍보 등 지속가능한 국가지질공원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박우정 고창군수도 "과학적으로 중요하고 희귀한 지질자원을 현명하게 보전·활용하여 생태관광과 연계한 지질관광 활성화로 주민 소득창출 및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내가 직접 책을 만든다고?”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하나가 됐다. 책마을해리는 지난 2012년 해리면 옛 나성초등학교 자리에서 문을 열었다. 드 넓은 운동장에는 동물 모양 동상들이 세워져 있으며 옛 정취에 빠져들게 한다.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물론 많은 이들이 ‘정말 책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만의 책이 출판되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낀다.

## 지역 생태인문자원 다양한 체험 출판캠프

오래 전부터 책마을을 꿈꿔오던 이대건 촌장은 올해로 24년차가 된 출판편집자이다. 그는 지난 2012년 고창 해리 나성초등학교에 내려와 교실 한 칸 한 칸을 고치고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을 만들고, 책공방, 한지공방, 활자공방, 책숲, 마을책방을 만들었다. 그리고 어느새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책마을해리를 다녀갔다. 폐교가 다시 학교로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책마을해리에서는 지역 생태인문자원을 체험하고 출판하는 다양한 출판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하룻밤 책 읽고 책이야기 실컷 나누는 북스테이와 작은책방 ‘해리에서’를 운영한다. 버들논작은도서관에서는 그림책과 만나고, 한지만들기와 활자 체험을 통해, 유구한 우리의 출판문화도 슬쩍 엿볼 수 있다. 지역 청소년들과 매주 토요일 신나게 놀고 먹고 읽고 쓰고 출판하는 ‘책마을 책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매달 보름달 뜨는 주말저녁에는 늦도록 책 읽고 노는 ‘부엉이와 보름달 작은축제’가 열린다.





이외에도 책마을을 둘러싼 월봉, 성산, 매남, 유암 마을의 아짐들 마을학교인 ‘밭매다판짓거리’도 매주 한 차례 문을 연다. 평생 일만하다 살아온 우리 아짐들이 목요일밤 책마을에 모여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는다. 올해로 벌써 4학년이 된 마을학교 아짐들은 ‘마을책, 오늘은 학교 가는 날’, ‘개념 없이 잘 사는 법’, ‘밭매다 판짓거리’ 등 벌써 3권의 저자가 되었다.


## 누구나 책, 누구나 도서관

지난해 봄에는 고창군내 면단위에서는 처음으로 해리면 소식지가 창간됐다. 그 이름하여 ‘마을신문 해리’. ‘마을신문 해리’는 책마을해리에서 기획, 취재, 편집, 제작까지 도맡아 만들고 있다. 해리면 마을 이야기, 사람 이야기, 면 소식, 지역 소식, 향우회 소식 등을 실어 재경향우와 해리면민에 배포하고 있다.

앞서 올해 여름에는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캠프에 각각 40명씩 2박3일간 다섯 번에 걸쳐 펼쳐졌다. 시인학교, 만화학교, 서평학교, 생태학교, 그림책학교 다섯 가지 빛깔의 책마을해리 여름캠프를 진행하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책마을해리는 ‘누구나 책, 누구나 도서관!’이라는 모토를 갖고 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닌 누구나 책이 되고, 누구나 도서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대건 총장은 “작은 개인의 이야기가 모여 지역의 역사가 되고, 지역의 역사가 모여 시대의 의미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고창 책마을해리에서는 ‘우리 모두 책이 되고 도서관이 되는 파란 꿈’이 펼쳐지고 있다. 



### 책마을해리

위치 전북 고창군 해리면 월봉성산길 88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pbvillage>  
문의 070-4175-0914





국내 최고의 종합 힐링 휴양타운

# ‘고창 웰파크시티’



고창웰파크시티 이사장 이종균

전북 고창군 고창읍 ‘고창 웰파크시티’는 호남의 3대 명산인 방장산 자락에 대단위 편백나무와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곳에 위치해 자연 면역력 강화를 위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실버산업 전문기업 서울시니어스타워(주)(이사장 이종균)가 지난 2011년부터 이곳 고창군 석정온천지구 일원에 자연치유 면역 증진을 위한 휴양 및 가족건강 종합 휴양타운을 조성했다. 서울시니어스타워는 국내 대장항문 전문병원인 서울송도병원이 함께 ‘새로운 휴양 및 건강 프로젝트’를 목표로 석정온천지구 154만㎡(약 47만 평)에 국내 최대의 자연치유형 리조트 타운인 ‘고창 웰파크시티’를







01 골프라운딩 03 최첨단장비  
02 야외스파 04 힐링카운티  
05 편백나무숲

조성하고 신개념의 ‘자연친화형 종합 힐링 커뮤니티’공간을 마련한 것.

고창 웰파크시티 내에는 현재까지 18홀 골프장(석정CC), 황토건강펜션 힐링카운티(167실), 골프빌라, 자연면역치유센터(홀론센터), 게르마늄 온천스파(휴스파), 석정웰파크병원, 고창타워(실버타운), MTB(산악자전거) 공원, 상가 등이 조성됐다. 앞으로 호텔, 승마장 등도 조성해 명실공히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 건강휴양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리조트 내 대표적인 휴양시설인 석정 휴스파 온천은 게르마늄 성분이 풍부해 아토피, 노화방지,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협심증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면역력을 높여주고 체내에 부족한 산소를 공급해 노화예방 및 자연 치유력을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스파 온천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루르드 지역보다 게르마늄 성분이 약 3배 정도 높아 힐링에 최적으로 평가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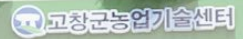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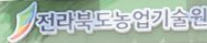
청정 고창의 수려한 자연환경 속에 144병상, 국내 최고의 의료진으로 구성된 석정웰파크병원(원장 이희중)도 고창 웰파크시티의 자랑이다. 지난 2015년 ‘숲속의 첨단병원’을 표방하며 개원한 웰파크병원은 최첨단 MRI(자기공명영상장치),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초음파검사기, 디지털 유방촬영장치 등 첨단 의료장비를 갖춰 의료검진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웰파크병원은 서울송도병원의 의료진을 비롯해 임상영양학 박사진, 암면역센터 의료진, 세포연구소의 연구진이 꾸준히 연구 개발한 의료 성과를 기반으로 토털 건강관리 시스템이 가능한 자연면역증진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니어스타워는 이 같은 웰파크병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령 은퇴자와 이용객들에게 체온면역요법, 세포분열 둔화 방지 프로그램, 면역력 증강 프로그램, 개인 맞춤형 자연면역증진 등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할 계획이다.

이종균 이사장은 “종합휴양타운인 웰파크시티는 외형이나 규모보다는 청정 고창의 자연 훼손을 최소화한 건강 증진에 중점을 두고 설계했다”며 “여기에 2년전 개원한 웰파크병원은 송도병원의 30년 노하우를 그대로 적용, 환자 중심의 국내 최고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 고창 지역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 고객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국내 최대 자연 치유형 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운영 철학을 밝혔다.🌿





봄과 가을에 치유를 더하다



때 묻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순수함을 간직한 고창은 고인돌, 운곡 람사르습지 등 곳곳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된 지역이며 발길 닿는 곳곳마다 볼거리, 즐길 거리가 한 가득 펼쳐져 있다. ‘안하는 건 있어도 못하는 건 없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6차 산업에 치유농업을 더한 ‘쉽드림’이 고창에 있다.

## 소중하고 소중한 소농가와 소소한 6차 산업

최근 농업 미래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6차 산업의 가치가 급부상하고 있다. 1차 농업으로 생산, 그 생산물을 2차로 가공하고 유통하며 체험, 관광과 같은 3차 산업과 연계해서 농촌 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고용을 창출하는 6차 산업으로 확장시켜 농촌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와~치유받는 느낌이야~~!” 이색적인 건물이 눈에 띄는 쉽드림을 찾은 고객의 말이다. 쉽드림 치유뷔페에서 한상 가득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마치고 나면 향기로운 맷돌보리커피를 마신다. 편백나무로 만든 족욕통에 복분자 소금을 넣어 족욕으로 마무리하면 하루의 피로가 확 날아가는 기분이다.

고창 쉽드림에서 장연희 이사는 “쉽드림은 소농가의 소소한 6차 산업을 영농조합법인으로 만들면서 바람직한 기업관을 구축하고 지역과 소통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이사는 지난 2014년 사업을 제안하면서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을 영입했다. 같은 해 6월 법인을 설립하면서 7명의 출자자가 함께했고 자본금 1억 5천500만원으로 사업자등록신고 후에 사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현재까지 복분자레스토랑, 복분자족욕장, 농산물직거래체험농장, 컨설팅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쉽드림의 탄생배경은 소농가의 자립을 위해 1차, 2차, 3차 산업의 융복합 6차 산업을 하기 위해서였다. 이곳에서는 생산과 가공, 유통, 판매, 체험, 관광을 상품화하고 있다.

복분자 족욕체험을 비롯해 순쌀빵만들기, 복분자효소만들기, 농업진로체험, 원시농촌체험여행, 블루베리잼만들기 등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 안하는 건 있어도 못하는 건 없다!

쉽드림은 고창 농민들이 게르마늄이 풍부한 황토밭에서 정직한 땀방울로 생산한 복분자, 오디, 블루베리, 아로니아, 수박, 고추, 땅콩, 풍천장어 등







다양한 먹거리를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한다. 이러한 농산물을 ‘고창 Ten 푸드’로 활용하면서 지역농업과 함께 발전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각 공동체는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 서로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로컬푸드 레스토랑에서는 치유음식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매출자원을 개발했고, 쉼드림 체험여행, 족욕체험(고창소금+고창복분자) 등 스토리를 만들어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쉼드림은 입소문을 타면서 ‘아는 사람들은 아는 또 찾고 싶은 장소’로 손꼽힐 정도로 인기다.

현재 7명의 운영이사가 각 파트별로 나눠 각자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쉼드림에는 1~3차 사업별 20명의 귀농농가와 기존 18명의 농가 등 모두 38명의 농가들이 다양한 파트로 참여하고 있다. 공동체 중간조직에서는 센터 역할을 하면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마케팅, 고객관리의 통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회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각종 회의를 비롯해 정보화활용교육과 체험농장교육, 응급구조교육, 체험인증제교육, 도농사업 운영리더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장 이사는 “쉼드림은 회원들 간의 농산물을 매입하고 가공해 판매 하도록 돕는다. 공동체 사업의 좋은 점은 분업화, 전문화”라며 “관내 축제와 행사에도 참여하고 고객들에게 손 편지를 작성하고 때에 맞게 문자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치유환경조성에 중심을 두고 생산스토리로 고객과 소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쉼드림

위치 전북 고창군 고창읍 당촌길 75

홈페이지 <http://shymdream.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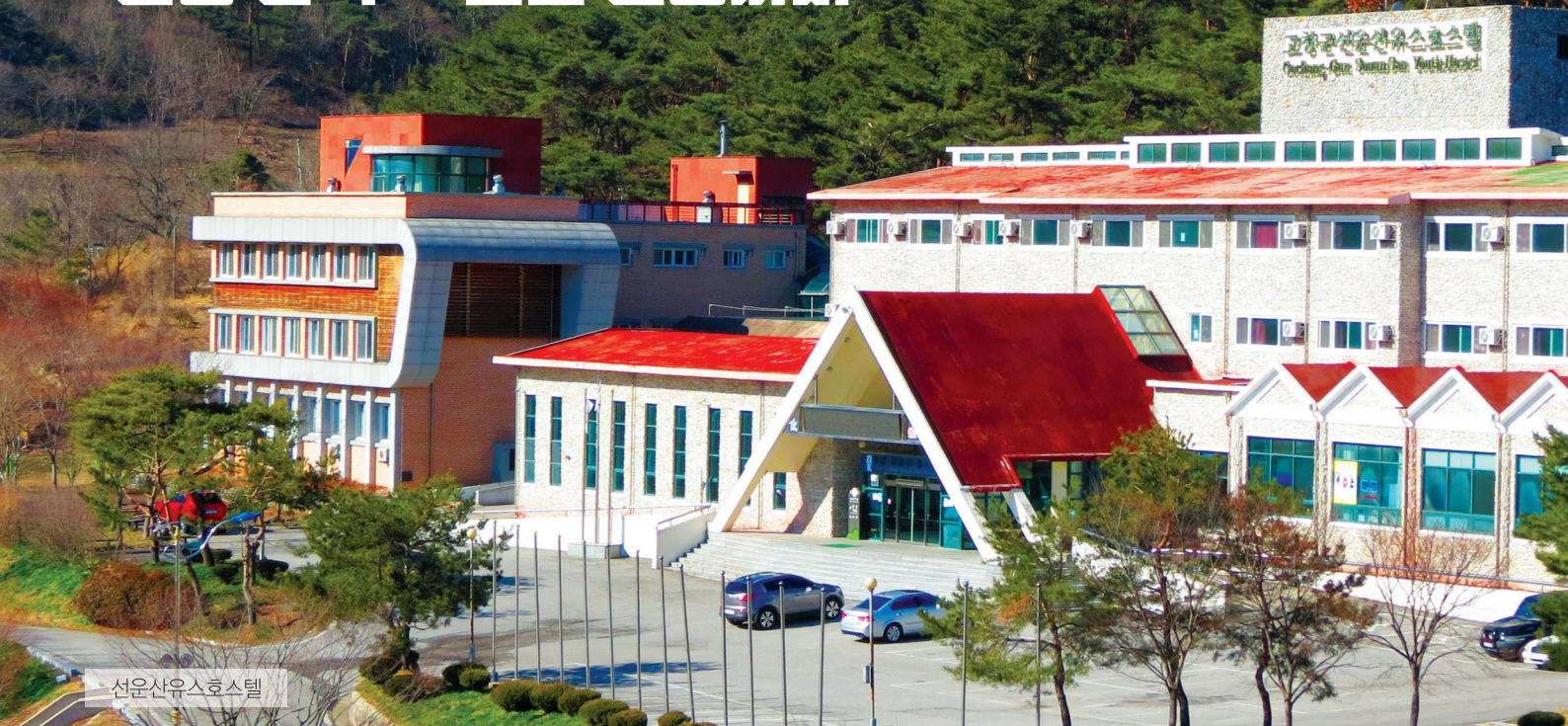
문의 063-563-4083





별 헤는 밤, 어디서 잘까?

# "전통 한옥 ~ 오토 캠핑까지"



가을이면 누구나 멀리 떠나고 싶은 설레임과 충동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바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고 싶다면 캠핑장 혹은 과거로의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고창 한옥마을로의 특별한 여행을 추천한다. 찰르르 풀벌레 소리와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낭만적인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곳이 고창이다.

## —— 자연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가을 밤

고창 복분자테마공원 내에 자리하고 있는 고창오토캠핑장은 탁 트인 공간에 맑은 공기와 자연이 한 폭의 그림을 연출한다.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캠핑의 즐거움을 한껏 느낄 수 있다. 이곳은 텐트 30동, 카라반A형 5동, 카라반B형 5동, 카라반C형 10동 및 펜션A형(6인) 2동, 펜션B형(12인) 2동이 마련돼 있다. 캠핑장 옆에는 샤워장, 취사장, 다목적운동시설 등을 갖추고 황토체험방과 복분자 테마체험도 즐길 수 있다.

또 다른 야영장은 바로 선운산유스호스텔 앞길을 지나면 보이는 선운산도립공원 야영장이다. 나무 데크 산책로가 멋스러움을 더하고 가을이면 붉은 꽃무릇이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공동 취사장이 있는 선운산도립공원 야영장은 텐트 45동이 설치 가능한 규모로 비용은 승용차 및 승합차 모두 공원 입장 시에 시설사용료 2천원을 내야하고 캠핑장 이용 관련 별도의 요금은 없다.







선운산유스호스텔은 310명 숙박이 가능한 53(본관 32, 신관 21)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타 부대시설로는 식당(200명), 대강당(150명), 세미나실(60명), 회의실(20명)등을 갖추고 있어 가족여행 및 기관 단체수련회, 동창회, 수학여행, 기업연수, 대학교 MT 및 OT를 즐기는 최적의 숙박시설이다.

### 조선시대로 여행을 떠난다

명품 한옥체험을 위한 고창읍성 한옥마을은 총 8동 11실로, 읍성 내에 있는 관아의 객사와 내아건물을 재현했다. 전통 한옥의 특징인 마루, 정자, 토방과 마당으로 구성돼 있고 숙박객의 개인생활 보호를 위해 각 동별로 기와를 엮은 담장을 설치했다. 고창읍성 한옥마을을 거닐다 보면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여행을 온 듯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한옥마을 옆에서는 도예체험장에서 도자기 체험이 가능하며 전통 옛거리 장터에서는 주전부리와 국밥, 약선음식, 향토음식 등 고창의 손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고창 고수면 은사리 신기마을에 있는 '팜스테이 빌리지'는 전라북도 향토산업마을로 운영 중인 체험농장으로 도시민이 한가로이 농가에서 숙박하면서 채소, 작물 재배 등 농촌의 일상을 직접 체험하고, 가족과 함께 농촌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청정한 지역으로 사계절 경관이 뛰어나 농촌관광지로 일품이다. 신기마을에서 생산되는 복분자, 두릅, 오디, 가시오가피, 고사리 등 계절마다 제철 농산물을 맛볼 수 있다. 아이들과 함께 농작물을 수확하며 함께하는 값진 체험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 된다.🌿



- 01 고창 명품 한옥체험마을
- 02 고창 선운산도립공원 야영장
- 03 고창 오토캠핑리조트
- 04 고창 팜스테이빌리지





## “농업은 이제 6차 산업입니다, 농촌 자체가 바로 상품이지요”



올해로 귀농 12년차를 맞고 있는 고창군 부안면 베리팜 오영은(51)·박재숙(48)대표. 베리팜([www.berryfarm.kr](http://www.berryfarm.kr))은 상호대로 복분자, 오디, 아로니아 등 베리류를 직접 재배·판매하는 베리류 전문 업체다. 2005년 7월 고향인 전북 고창으로 귀농한 오대표 부부는 귀농 이듬해인 2006년 복분자 생과와 가공품으로 1억원의 매출을 올린 이후 연간 2~3배의 성장을 보이며 꾸준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

### 2005년 아버지가 물려주신 3천평으로 농사일 시작

오 대표는 1986년 농고를 졸업하고 상경했다. 식당, 서비스업, 자영업 등 안 해본 일이 없었다. 특별한 재주가 없고 자본이 없으면 건디기 힘든 곳이 서울이 아니던가. “어느날 갑자기 서울 생활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지금 생각하니 마음은 항상 고향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 같아요.” 오 대표는 아내와 함께 고향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자는 생각에 20여년의 서울 생활을 접고 2005년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 공음면으로 귀농했다. 그리고 작고하신 아버지가 물려주신 밭 1만여㎡(3000여평)에 고추, 깨, 마늘 등을 재배했다. 귀농 후 첫 농사는 인건비는 고사하고 오히려 빚만 졌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농사일은 그리 녹록지는 않았다.

### 농업기술센터 교육이 ‘인생의 터닝포인트’

오 대표는 농사로 성공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그해 겨울 고창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귀농교육과 농사교육에 참여했다. 당시 고창군은 복분자 특구로 지정돼 복분자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때였다. 1년여의 교육을 받고 자신감을 얻은 오 대표는 2007년 1500평을 시작으로 2009년까지 6000여평(2만㎡)으로 재배면적을 늘려갔다. 비록 그때까지 매출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고창군청에서도 오 대표의 성실성을 보고 복분자가공공장 설립에 큰 도움을 주었다. 오 대표는 2009년 베리팜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공장가동과 함께 본격적인 판매 전략에 들어갔다. “오프라인에서는 판매에 한계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집사람과 함께 온라




인 판매망을 구축하기로 마음먹고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만들었지요.” 오 대표의 성실한 농장운영에 믿음이 갔는지 소비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온라인을 통해 1년만에 복분자 원액과 생과일 매출이 1억5000만 원을 돌파했다. 이후 매출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며 매년 2~3배의 성장을 거듭했다. 지난해 기준 회원 수 4만여명을 확보했으며 매출은 10억원을 돌파했다.

## 베리류 전문 업체 집중 홍보 ‘적중’

베리팜이 이처럼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것은 부인 박재숙씨의 온라인 활동이 무엇보다 큰 역할을 했다. KBS 인기예능프로그램인 ‘1박2일’이 고창에서 촬영된 것을 블로그와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후 ‘생로병사와 기타 여러 프로그램에서 복분자가 소개되면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한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간다’는 소신으로 오 대표는 회원관리에 전념했다. 제품홍보는 물론 고창 관광 등 다양한 소식들을 끊임없이 회원들에게 뉴스레터를 통해 알렸다. 이제는 확보된 회원만으로도 특별한 홍보활동 없이 ‘베리팜’ 제품을 팔 수 있게 됐다. 사업에 자신감을 얻은 오 대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2012년 오디, 아로니아, 블루베리 등 베리류를 활용한 6차 산업에 도전할 목표를 세웠다. ‘재배와 판매’의 단순한 농업 형태가 아닌 농업에 체험과 관광, 음식, 서비스를 접목해 한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취지다.

## “베리팜 6차산업의 결정체로 만들 터”

오 대표는 복분자 클러스터인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에 2013년 베리팜을 이전하고 베리류와 관련해 관광객들이 체험, 교육, 숙박, 음식, 관광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이른바 ‘베리류의 메카’로 완전한 6차산업의 결정체로 조성한 것이다. 미국의 와인 전문 타운인 나파밸리처럼, 베리팜은 가공공장을 포함해 판매장, 농가맛집(채소뷔페), 교육장, 체험장, 펜션, 연수시설 등의 시설을 갖췄다. 질 좋고 믿을 수 있는 아로니아 생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3년 전 100여 아로니아 농가들을 참여시켜 영농조합도 결성했다. 올해는 판매장을 더 확대해 매출을 끌어올릴 계획으로 고창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와 공동으로 건강 기능성을 갖춘 신상품도 꾸준히 개발할 예정이다. 오 대표 부부는 “베리팜에서 인생이 더욱 아름다워지고, 그 아름다움이 오래 지속되도록 베리팜을 가꾸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재미있게 사는 것이 목표”라고 ‘인생 2막’의 포부를 밝히면서 “고향으로 귀농하길 정말 잘했다”며 환하게 웃었다. 



### 베리팜 힐링파크

위치 전북 고창군 부안면 용산용흥길12

홈페이지 <http://berryfarm.kr>

문의 063-564-1467





## “부모님의 품처럼 따뜻한 고향, 더 큰 발전 위해 힘 보탬 것”

국가보훈처 심덕섭 차장

온화한 미소와 가슴속에 뜨거운 고향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국가보훈처 심덕섭 차장. 고창군 무장면 출신으로 제30회 행정고시 합격 후 공직에 입문해 중앙부처와 지방을 아우르는 행정경험과 탁월한 업무추진능력으로 '행정의 달인'이라 불린다. 고향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는 심덕섭 차장을 만났다.

**Q**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 실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셨는데요, 공직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A** 제가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생활을 시작한게 1987년이었으니까, 어느덧 30년이란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에 담아둔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항상 기본에 충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행정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행정을 하면서 국민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정을 효율화하며, 부정부패와 단절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난 30여년 간 어느 자리에 있던, 어느 곳으로 가든 이 가치는 저를 이끌어준 마음 속의 나침반이었습니다.

**Q** 공직생활 동안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나요?

**A** 공직생활을 돌이켜보면, 큰 기쁨과 보람을 느꼈던 때도 많았고, 견디기 힘든 아픔과 통한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때는, 정권 교체기에 참여한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 작업이 힘든 들었지만 큰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또 2014년 전북 부지사로 고향을 위해 일하던 때가 저에게는 매우 보람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고향, 고창을 위해 사업을 챙기고 예산을 반영하던 일들은 지금도 가슴 뿌듯한 일입니다. 고

창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면서 아쉬운 부탁도 많이 하고 다녔지만 항상 기쁜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우리의 고향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Q** 새 정부 들어 국가보훈처의 위상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국가보훈처가 구하는 일들을 소개해주세요.

**A**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크게 강조되고 있고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보훈정책이 곧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지름길이라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당한 예우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국가보훈처는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되어 앞으로 보훈처의 역할이 크게 강화되었고,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은 물론이며, 6·25참전과 월남전 참전 등으로 나라를 지키신 분, 또 4·19와 5·18과 같은 민주화에 기여하신 분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과 예우를 하는 부처입니다. 최근에는 위험직무에서 희생되신 경찰, 소방공무원 등도 보훈대상자로 예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희생, 공헌하신 분들을 한분도 놓치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국가보훈처는 따뜻한 보훈정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Q** 전라북도와 고창군 발전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각별한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향 발전을 위해 하고 싶은 말씀은?

**A** 우리 고창은 정말 살기 좋은 곳입니다.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고창으로의 여행, 또는 방문을 권하고 자랑하곤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창을 한번 다녀오고 난 후에는 너무 좋다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고 많은 분들이 나중에 고창으로 귀촌하고 싶다는 말도 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아름다운 곳, 살고 싶은 지역으로 거듭나기 까지는 고창군민들의 큰 노력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고향 사랑의 마음을 실천하면서 고창을 곳곳이 지키고 살

**Q** 심덕섭 차장님에게 ‘고창’이란?


**A** 저에게 고창이란, 말 그대로 ‘어머니의 품’입니다. 고창은 좋은 일이 있어 찾아가면 더 기뻐해 주고, 반갑게 맞아주어 기쁨을 두 배, 세 배로 느끼게 해줍니다. 또 힘들 때 찾아가도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를 해 주어 마음에 힐링이 되고 새로운 용기를 얻고 옵니다. 고창은 제가 언제 어느 때 찾아가더라도 어머니의 품처럼 늘 그 따뜻함과 포근함 그대로 저를 품어주고 감싸줍니다. 이제 저는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고향발전에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고창군민들이 주신 ‘군민의 장(2012년)’과 ‘자랑스런 고창인상(2017년)’에 걸맞은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심덕섭 차장(왼쪽)과 이길현 고창군청 자치행정과장이 대담하고 있다.

아온 주민들의 애향심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고창의 발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민들이 지금처럼 변함없이 화합하고, 특히, 인구 감소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식해 고창인구의 증가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고창군이 전국 최고의 귀농귀촌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는 만큼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확보되었으니 여기에 귀농귀촌인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과 지원을 강화하고 누가 찾아와도 편안한 고향으로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간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Q** 고창군민께 한 말씀해주세요.

**A** 고창군민 여러분께 항상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가보훈처 차장으로 임용되었을 때에도 많은 분들이 내 일처럼 기뻐하면서 축하를 듬뿍 해 주셨는데, 그 마음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가족과 친지와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인사드릴 수 있어 감사하고,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둥이 가족 김영보·이호선 부부

## “고창은 아이 낳아 키우기 정말 좋아요!”



지난 201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두 번째라고 한다. 대한민국에선 ‘아이 낳아 키우기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전국 셋째 출산율 1위를 한 마을이 있다. 바로 고창이다.

고창의 다둥이 가족을 고창 모양성에서 만나기로 했다. 별 좋은 날 초록이 싱그러운 모양성 인근에서 이호선(40)씨와 남편 김영보(42)씨, 아무진 첫째 딸 리원(9), 개구쟁이 민수(7)와 현수(5) 이렇게 다섯가족이 반겼다. 고창 다둥이 맘 모임에 회장을 맡고 있는 호선씨는 “저희 모임은 첫 번째 엄마 생일챙기기이며 두 번째는 공동육아로 함께 한다”며 “앞으로는 불우한 아동들을 돕는 봉사활동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창에는 한집 걸러 한집에 다둥이 가정이가 있다”고 “고창의 한 병원에서 셋째는 무료진료도 해준다”며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곳이라고 자랑했다. 김씨 부부는 처음 1년차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이 많았다. 그러다가 소중한 첫째를 갖고 2살 터울의 둘째아들이 생겼다. 그리고 둘째가 돌이 훨씬 지나고 난 뒤, 자연스럽게 선물 같은 막내가 생겼다. ‘뮤지컬 배우’가 꿈이었던 그는 고등학교 선배인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30살에 결혼했다. 애정 넘치는 부부답게 남편은 “넷째도 딸 하나 낳으면 좋겠다”고 너스레를 떠다. 최근에는 결혼 10주년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제주도에서 리마인드 웨딩촬영을 하면서 다섯 가족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호선씨는 “다둥이 맘 모임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함께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워야겠다는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고창군이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둥





이 부모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고창군은 인구증가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출산장려금(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700만원, 다섯째 이상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이가 태어나면 마더박스 등 출산축하용품과 아기띠 등 신생아용품을 지급하고 난임부부에게는 난임 진단비를 임신부에게는 산전검사를 지원하는 등 찾아와 살고 싶은 행복한 고창군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귀농귀촌인** **선운도원 김수남 대표**

## 전통음식에서 미래를 찾기 위해 농촌으로 간 여행작가

전국에서 '귀농 귀  
촌 1번지'로 손  
꼽히는 고창은  
많은 외지인들  
이 연고 없이  
찾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산과 바  
다가 함께 어우러진 청정자연  
을 품은 고창에 한번 와본 사  
람이라면 다시 기억나게 만드는

매력 넘치는 곳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자리와 교육 문화 인프라, 복  
지가 잘 되어 있어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고창 심원에 사는 귀농인을 만나기 위해 심원 초등학교를 지나서 한 마을로 향했다. '선운도  
원'이라는 팻말을 지나서, 화산조청 만드는 체험장에서 김수남(51)대표를 만났다. 김 대표는  
“조청은 화산처럼 뜨거운 불길 속에서 오랜 시간 제 몸을 녹이고 녹여내야만 비로소 단맛을  
얻을 수 있다”며 “조청은 예로부터 품이 많이 들어가는 귀한 음식이다. 화산조청의 자량은 옛  
날 방식으로 만들어 옛 맛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부인 변윤자 씨와 함께하는 선운도원  
체험장에는 귀농을 준비하는 이들이 함께하면서 조청 고추장만들기에 열중하고 있다. 선운  
도원에서는 조청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우슬식혜, 화산조청, 잼, 도라지무와 우슬오가





피 조청 등을 판매하고 있다.

전남 진도가 고향인 김 대표는 10년 전 개인적인 일로 심원 만돌마을을 방문하였다. 당시 너무 좋은 느낌을 받으면서 고창에서 제2의 인생을 계획하기에 이르렀다. 농촌에서의 여유로운 삶을 동경해오던 부인 역시 ‘고창으로 귀농하자’라는 말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울에서 관광사업을 해온 김 대표는 체험학습 전문여행사, 관광컨설팅, 여행작가로 19년 넘게 활동해왔다. 그리고 지난 2011년 5월 고창군 심원면으로 과감히 귀농을 선택했다. 그러면서 처음 1년 동안은 동네 빈집에서 생활하며 동네 사진도 찍으러 다니면서 휴식의 시간을 가졌고 다음해 집을 짓기로 결심했다. 사업을 위해서 가공공장도 함께 지었다. 그렇게 처음 약초장아찌로 사업을 시작했다. 경험이 부족했고 너무나 많은 인력이 많이 필요했으며 인건비 지출이 크게 작용해서 그 사업은 정리하고 지난 2014년부터 화산조청을 만들기 시작했다.

김 대표는 “농업에 배수진을 치고 하지 않으면 농사는 너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그래서 저는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해서 판매와 가공에 전념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화산조청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직거래, 관내 농협, 오프라인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민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그는 귀농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농촌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고 재미있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 심원에 와서 살면서 한 번도 후회해 본적이 없을 만큼 행복하게 살고 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관광관련 일을 하면서 고창의 농촌관광 **활성화**에 기여 하고 싶다.”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건강하고 밝은 부부의 행복한 삶을 응원해 본다.🌍

다문화가정 **강인규·차베스제니퍼 가정**

## “ 한국에서 ‘영어 선생님’ 되고파 ”



“한국에서 중학교 영어교사로 일하고 싶어요.”

필리핀이 고향인 차베스제니퍼(34)씨는 지난 2008년 한국행을 결심했다. 당시 6명의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전북 고창을 찾았고 매일유업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그곳 직장장에서 ‘오빠’로 부르던 지금의 남편 강인규(35)씨를 처음 만났다. 초창기에는 직장동료로 지내다가, 인규씨가 먼저 그녀에게 호감을 보였다.



남편 인구씨는 “연애를 하면서 핸드폰 앱 등을 통해 언어의 장벽을 이겨내왔다”며 “착하고 예쁜 제니퍼에게 사랑의 감정을 가지면서 결혼까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힘든 결정 끝에 ‘결혼하자’며 먼저 고백을 했다”고 말했다. 제니퍼씨도 역시 인구씨가 마음에 들었지만 필리핀에 있는 친정부모의 반대는 막강했다.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겠다’는 말에 인구씨의 부모 역시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결혼에 성공했냐”는 질문에 부부는 “너무 사랑하니까요~!”라고 입을 모았다. 그렇게 어렵사

리 지난 2011년 결혼에 골인한 부부는 첫째 딸 수정(6)이와 둘째 민아(5)를 얻었다. 엄마, 아빠를 빼닮은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미소는 부부의 금슬을 더 좋게 만드는 원동력이자 해피바 이러스다. 결혼 후 남편은 현재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우면서 벼 농사를 비롯해 수박과 참깨, 고추 등을 심고 있다. 부인도 아이들을 돌보면서 다문화센터에도 열심히 다니고 가사일에도 열심히 다. 제일 자신 있는 요리도 ‘제육볶음과 잡채요리’를 꿈의 정도로 한국생활에 완벽적 응했다.

‘예쁜 아내가 한눈에 들어왔다’는 남편 인구씨는 “아내가 한글을 열심히 배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려고 돕고 있다”며 “고향이 그리울 텐데도 그런 내색 없이 시부모님과 아이들을 잘 돌봐줘서 정말 고마울 따름”이라고 미소지었다. 제니퍼씨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을 위한 꿈도 생겼다. 그는 “앞으로 열심히 한글을 공부하고 검정고시를 봐서 중학교 영어교사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낯선 한국에 와서 직장선후배로 알게 된 남편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리고 알콩달콩 귀여운 아이들과 함께 웃음꽃이 떠나지 않는 강인규·제니퍼씨 부부의 가정에 늘 행복함이 가득하길 바란다.🌍





## 장애인의 보금자리 고창군 장애인복지관



5700여 고창지역 장애인의 생활 복지문화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창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정종만)이 고창읍 읍거리110-1, 113번지 사회복지시설 지구에 부지면적 3,428㎡, 건축연면적 1,598㎡, 지상 2층 규모로 2017년 8월 말 건립됐다.

고창군 장애인 복지관은 국·도비 12억원 등 총 38억원이 투입됐다. 1층에는 물리치료실, 재활운동실, 주간보호실, 개별교육실, 소회의실, 식당, 샤워실, 휴게실을 비롯해 2층에는 사무실, 보호작업장, 정보화교육장, 상담실, 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다목적 강당, 음악치료실, 자원봉사실 등이 들어섰다. 그간 고창에는 장애인을 위한 전문 기관이 없어 장애인들이 재활프로그램을 받기 위해서는 인근 광주나 전주, 정읍으로 가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고창군은 장애인 인구는 약 5700여명으로 군민의 10%를 차지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의 여가와 복지서비스에 대한 기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작 장애인들의 복지편의를 제공하기에는 장애인 전문 프로그램이나 공간적으로 부족함이 많았다.

이에 민선6기 첫 해인 2014년, 박우정 고창군수는 '장애인 복지를 위한 공약사업' 일환으로 고창읍 읍거리 사회복지 시설 지구 내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2년여의 공사를 마치고 올 8월 완공했다.

특히 고창군은 최고시설의 복지관 건립을 위해 장소 선택부터 건물 위치, 건물 용도 등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장애인들의 뜻을 적극 수렴했다. 장애인 복지관은 한두레장애인자립생활협회가 고창군으로부터 위탁 받아 앞으로

5년(2017~2021년) 동안 운영한다.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정종만 복지관 관장을 중심으로 조덕환 사무국장 등 1국 6팀 20여명의 장애인 전문 관리팀이 구성됐다.

앞으로 장애인들의 보호자인 장애인가족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여성장애인을 위해 여성장애인 상담 및 쉼터, 임신·출산·양육·가사보조활동 지원, 여성장애인 결혼 주선



### 고창군장애인복지관

위치 전북 고창군 고창읍 전봉준로 88-9  
문의 063-562 3777



고창군 장애인복지관 전경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관 개관식은 전체 프로그램이 가동하는 10월 쯤 열 계획이다. 고창군장애인복지관이 ‘복지 고창’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5700여 장애인들의 보금자리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본다.

초대 장애인복지관장을 맡은 정종만(65) 한두레장애인자립생활협회 대표는 본인도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고창 사람들은 그를 장애인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가 지역사회에서 보여준 활발한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정 관장은 “살아오면서 장애인이라는 시각적 편견도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오히려 다양한 사회 활동이 오늘의 저를 있게 만든 것 같아요.”라며 자신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소개했다.

정 관장은 “장애인복지관의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들이 정정당당하게 사회생활하며 지역의 일원으로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종만 관장과 일문일답

### 초대 장애인복지관장으로서 취임소감?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처음 장애인들을 위한 일을 해야겠다고 발을 디디면서 느낀 설렘과 걱정입니다만 처음 가졌던 마음으로 지역 장애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 복지관은 어떤 곳인가?

복지관은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활과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전문화된 사업 개발과 수행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곳입니다.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쉽터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교육공간인 이용시설입니다.

### 운영방침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협력관계를 넓히고 지역사회에 맞는 장애인일자리를 창출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조직화와 이용자 욕구 해소를 위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 없는 생활문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 고창군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

장애인복지관이 개관되면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많이 활동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들을 이해하는 공간으로 많이 활용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장애인에 대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고창군, 국비 확보 노력 결실 2018년 정부 사업예산 1268억 반영 '역대 최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해 온 고창군이 지난 8월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예산안'에 1268억원 (2018년 당해연도 국비 기준)이 반영되면서 고창군 역대 최고액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창군은 내년도 국가예산 대상사업으로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국책사업에 지역정치권과 지역출신 유력인사, 중앙부처를 가리지 않고 가능한 방법을 총 동원해 요구가 받아들여지도록 설득해 왔다.

특히 박우정 군수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연초 국가재정운용 기획 단계부터 지난 8월 29일 정부예산 편성과정까지 총 31회에 걸쳐 장관부터 실무자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중앙부처의 문턱이 닳도록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치권과 공조가 필요한 사업은 직접 국회를 방문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왔다.

사업별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청보리밭 6차산업 거점조성 사업 등 53건의 신규사업 국비 168억원과, 해리천·갈곡천·주진천·칠암천 등 지방하천 정비사업 110억원(총 사업비 729억

원), 해리 금평 및 공음 건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0억원(총 사업비 219억원), 흥덕면과 해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45억원(총 사업비 127억원) 등 69건의 계속사업 국비 71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전남도계~석정간 국지도 49호선 건설공사 70억원(총 사업비 298억원), 해리~부안간 국도22호선 확포장 공사 74억원(총 사업비 489억원) 등 국책사업 16건 386억원도 국가예산안에 반영됐다. 이는 정부의 신규사업 및 SOC 억제 기조에 따라 정부 SOC예산 20% 감소와 대부분 지역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창군 SOC 예산은 총 386억원을 확보해 전년대비 211% 증가되는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해 온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군은 지금까지의 중앙부처 예산확보 활동내역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모색해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일부사업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추가 반영 및 부처 풀예산 사업과 공모 사업을 향후 소관부처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전년대비 40% 이상을 목표로 1300억원대의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명절 준비와 장보기는 고창전통시장에서 인정 넘치는 문화관광형시장 볼거리도 살거리도 가득



고창전통시장이 올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돼 특화시장으로의 변모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인 '2017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된 고창전통시장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특산물 등 고유한 특성을 즐기고, 살거리를 제공하는 특화된 공간으로 3년간 개발되고 있다. 고창전통시장은 올해 사업의 핵심방향을 '에너지 활력소 건강한시장'으로 정하고 시장내부에 모양성을 연계한 특화환경 개발, 협동조합 협업화를 통해 장어탕과 장어빵을 개발하는 등 부족한 먹거리도 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모양성 관광객을 시장으로 유입하기 위해 봄내음 소품 관광 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를 진행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벤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상인회에서는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상인 주도형 주 1회 물물물아리 활동과 우수시장 벤치마킹을 위한 월 1회 시장탐험대를 운영하는 등 상인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고창전통시장 상인회 최만영 회장은 "상인회가 앞장서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고창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관광명소로 전통시장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고창군, 인구 늘리기 시책추진 '탄력' 민·관 손잡고 활력 불어 넣는다



고창군이 민간기업과 협력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구감소 해소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창군을 비롯해 9개 지방자치단체(정읍시, 평창군, 예산군, 음성군, 강진군, 영양군, 하동군, 합천군)와 KT, LH, LG U+,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인구감소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민·관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9개 지방자치단체장, 5개 민간기업(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대표가 참석해 인구감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면서 각 지역의 인구증가를 위한 노력을 함께해 나가기로 했다.

고창군은 KT에서 추진하는 기가스토리 사업(5기가 네트워크 구축) 농협중앙회에 추진하는 농업인 행복콜 센터, 지역 문화복지센터, 농외소득 창출을 위한 마을개발컨설팅 사업(셰프 리장제도), LG U+와 고려대학교와 추진하는 원격강의 시스템, LH공사에서 추진하는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귀농귀촌 리츠 사업, 귀농귀촌 주택 임대사업 등 협력사업의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지역 실정에 맞는 민관 협력 사업을 발굴(공모 또는 시범) 신청하는 등 인구절벽 해소를 위해 군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고수해오름마을 조성 사업비로 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일자리와 생활정주공간이 어우러지는 생활중심마을 조성 및 가족친화공간을 마련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어 내실 있는 인구 늘리기에 나선다.

이밖에도 군은 인구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조례 제정 △군민의 생각을 군정에 반영할 아이디어 공모 △군 자체 인구늘리기 시책 마련 등을 통해 임신부터 결혼, 출산, 육아 등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고창으로 각종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 아산~선운사간 도로 개통 더 빠르고 편하게 천혜의 고창군 명소 즐긴다



군민들의 염원이었던 아산면 구암리 일원 '아산~선운사간 군도 19호선'이 9월 15일부터 개통됐다. '아산~선운사간 군도 확포장사업'은 아산면 소재지부터 선운산도립공원까지 총연장 9.1km에 국비 470여억원을 포함해 약 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고창군민의 숙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2004년 '지방양여금법'폐지에 따라 국비지원이 중단되어 1.9km를 남기고 공사가 중지되는 위기에 봉착하기도 하였으나 잔여사업에 군비 103억원을 투입해 마침내 전 구간 개통에 이르게 됐다.

이번 아산~선운사간 군도 개통으로 선운산도립공원, 병비위, 운곡 람사르 습지 등 천혜 관광자원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접근성 향상으로 관광객 증가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물류비용 절감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군은 빠르고 안전한 교통망 구축으로 고창군을 오가는 발길이 더 늘어나 주민소득창출로 이어질 것이며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으로 누구나 편하게 찾아와 오래 머물다 갈 수 있도록 고창~내장C간지방도 확포장, 고창~장성간 지방도 확포장, 고창~백양사C간 국지도와 해리~부안간 국도 확포장공사 조기착공 등 관련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창군 구석구석을 소개하는**

**블로그기자단이 추천하는 알짜배기 명소 함께해요~**



**황경심 기자가 추천하는 무장현 관아와 읍성**

갈 곳도 많고 볼 것도 많은 살기 좋은 명품 고창의 명소 찾기, 무장현 관아와 읍성은 사적 제346호, 지정 면적 129,349㎡, 고려시대까지 무송(茂松)과 장사(長沙)였던 두 고을은 1417년 효과적인 왜구의 방비를 위해 하나의 고을로 통합하게 됩니다. 두 고을 첫 자를 떼어 '무장'이라고 하고, 성과 관아를 새로 마련했다고 해요. 성에는 남문인 진무루가 있고 성 안에는 옛 고을의 풍모를 알 수 있는 객사와 동헌이 있는데, 객사는 송사관이라고 해 옛 무송·장사의 끝 자를 따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안에는 조선시대의 각종 건물 터와 사직단·여단·성황단 등의 터

전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조선시대의 읍성으로는 그 유례를 보기 어려운 확실한 연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술·역사적 중요성이 매우 크고 성안의 중요한 건물들은 별도로 지정 보호되고 있습니다. 또 선정을 베푼 원님이나 공덕이 있는 분들을 기리기 위해 백성들이 세워준 송덕비도 있습니다. 1.4km의 둘레를 가진 읍성은 남문인 진무루 주변의 석축 성곽을 제외하면 대부분 흙으로 다져진 토성입니다. 동학농민운동 고부 봉기로 당시 고부 군수 조병갑을 몰아내고 해산한 후 보복하듯 관군들의 횡포가 이어지자 고창·정읍·부안 일대의 농민군과 동학세력이 모여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거사를 시작한 역사의 장소이기도 해요. 낮은 평지를 에워싸며 일궈낸 읍성의 성곽을 따라 거닐다 보면 군사적 용도로 담을 쌓았다고 보단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구역을 보호하는 울타리를 만들어놓은 듯하죠. 마지막 석성이 읍성 맨 처음 들어서던 남문의 진무루 석성과 연결되어 만나야 하지만 현재는 문화재 발굴 조사 중이라 천천히 복원되고 있습니다.🌱

**무장현 관아와 읍성** 고창군 무장면 무장읍성길 45

**김선미 기자가 추천하는 부안면 선운리**

미당 서정주 시인의 생가와 국화꽃 벽화로 유명한 고창군 부안면 선운리를 소개합니다. 넓은 바다와 산으로 둘러싸인 선운리는 신선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놀고 갔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미당시문학관이 있어 서정주 시인의 육필 원고와 애장품, 유품 등이 보관 전시되어 있습니다. 문학관 근처에는 서정주 시인의 생가와 소요산이라는 산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선운리와 가까운 선운산도립공원에서 자연을 만끽하고 풍천장어도 맛보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추천합니다.🌱

**미당시문학관** 고창군 부안면 질마재로 2-8



**유연 기자가 추천하는 판소리전수관**

고창읍 동리국악당을 아시나요? 이 동리국악당 뒤편에 판소리 전수관이 있습니다. 고창이 판소리 성지인 건 아시죠? 판소리 다섯 바탕을 집대성한 동리 신재호 선생님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고정인데요, 그 맥을 이어가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곳이 동리국악당과 판소리전수관입니다. 판소리전수관은 최근 리모델링을 마쳐서 쾌적한 환경을 자랑합니다. 1층에는 국악수업 외에도 다른 문화예술 수업을 배울 수 있는 공간과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농악 반도 있고, 매듭수업도 있고 전시도 하더라고요. 2층에는 대금, 고법, 한국무용, 시조, 판소리반 등 수업별로 강의실이 나눠져 있습니다. 수업은 월, 화, 수요일에 진행이 되고 오후 3시, 4시, 5시, 7시에 한 시간씩 진행됩니다. 강좌비는 성인 한 달 만원이구요. 뛰어난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언제나 편하게 배울 수 있으니까요~ 우리 가락 배우기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판소리전수관** 고창군 고창읍 판소리길 20



## 카드를 쓰면 **고창군에 적립금이 쌓인다!**

내 고장 고창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고창군과 한국일보·한국스포츠경제,  
**KB국민카드**, **NH농협은행**, **비씨카드**가 협약한 '**내 고장 고창 사랑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시면 일상생활 속에서 나눔과 기부문화를 실천하고 지방재정(지역발전기금)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 ※ 지역발전기금 적립(군민복지와 현안사업에 사용)

- KB국민카드** : 10,000원 + 사용금액의 0.2%
- NH비씨카드** : 사용금액의 0.1% ~ 0.3%

- ① 발급대상 : 카드 발급 조건에 충족하는 재외군민, 군민, 사업자
- ② 접수기간 : 연중    ③ 문의처 : 군청 재무과(063-560-2475)



우체국 쇼핑

마음을 담아  
안심을 선물하다

• 최대 30% 할인 • UHD TV, 공기청정기, 할인쿠폰 등 푸짐한 경품 이벤트

이벤트 기간 2017. 9. 5. ~ 9. 26. (22일간)



### ■ 고창우체국장 추천상품



복분자주(300mlx4, 16%)  
**고창명산품복분자주**  
 -22,000원 → **19,800원**



고등어 2.3kg (13~15미)  
**참바다복분자고등어**  
 -23,900원 → **20,900원**



500g (1+1)  
**음식대장복분자양념갈비**  
 -19,900원 → **15,920원**



갯벌천일염 x 2 + 복분자소금 + 함초소금 + 마늘소금 (각 220g)  
**천만금선물세트**  
 -26,900원 → **24,210원**



**고창우체국**

문의 및 주문전화 (063)564-2001  
 가까운 우체국 창구에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제44회

# 고창모양성제



역사를 이룬다

2017년 10월 25일(수) ~ 29일(일)

